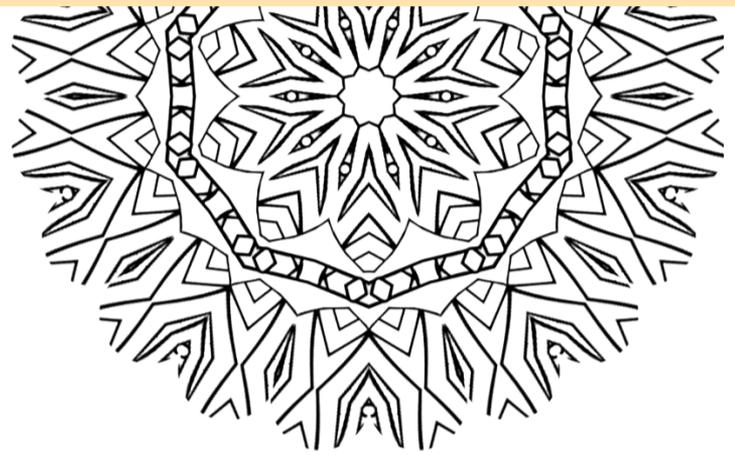


독서



실록 : 국어 공부의 正道

04_2018학년도 9월 16~19번
리얼리즘 미술

글장이
수능국어

How to use 독서실록

1. 수록된 문제를 **시간을 재지 않고** 풀어봅니다. 아무도 쫓지 않으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생각하며 풀어보세요 ㅋㅋ
2.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문(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서** 문단과 문단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의 구조도를 구체화하자!] 에 **구조도를 직접 그려보세요!**
3. 1,2의 과정을 다했다면, 선생님의 사고과정 해설을 보면서 **자신의 사고과정과 비교**해봅니다. 사고과정에서의 차이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YOU님의 문제점입니다.
4. 문제점을 발견했으니,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사고과정을 수정**해봅니다.
5. 뒤에 수록된 [1DAY 복습]은 1~4과정을 실시한 다음날 풀어보는 지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자신의 문제점이 수정됐는지 판단**해봅니다.
6. 뒤에 수록된 [1WEEK 복습]은 1~5과정을 실시하고 일주일 뒤에 풀어보는 지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자신의 문제점이 수정됐는지 판단**해봅니다.

기획 : 장민규

편집 : 장민규, 조창현

디자인 : 장민규

펴낸이 : 김민수, 장민규

펴낸곳 : 글장이수능국어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글장이수능국어'에 있습니다. 배포는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은 절대 금합니다.

오타자 및 책에 대한 피드백은 블로그 및 카톡 '글장이수능국어'로 주시면 됩니다.

꼭 읽어 보세요!!

1. 지문을 읽을 때는 [독해도구5]를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독해도구5]는 '사고'의 기본입니다. 즉, 지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조'도 '문제풀이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2.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발문'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발문은 문제풀이의 기준입니다.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기준을 모른다면, 답 또한 찾아낼 수 없겠죠? 더불어, 습관적으로 생각없이 발문을 읽어서도 안 됩니다. 발문을 읽고 기준이 되는 부분에 꼭 표시를 해보세요.

3. 시간을 절대! 재지 마세요.

국어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독해 공부, 다른 하나는 문제풀이 공부입니다. 본 교재는 '독해 공부'에 목적이 있는 교재입니다. 독해 공부는 글을 읽으며 최대한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재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로 논리적인 사고를 연습하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문제풀이 교재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4. 구조도를 꼭 그려보세요!

실전에서 구조도를 그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조도를 그려보지 않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는 구조도를 그리는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구조도를 그리는 목적은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에 있습니다. 많은 기출을 통해서 많은 구조도를 그리다 보면, 지문을 읽으며 지문의 논리를 머릿속에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5. 1Day 복습과 1Week 복습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 공부를 통해 깨우친 내용이 있어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깨우친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루 뒤 복습과 일주일 뒤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문을 3개씩 수록한 것입니다.

6. 매일 꾸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는 우리의 말이 글로 쓰인 것이기에 언어적 특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죠. 따라서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유학을 가는 이유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글을 읽는 연습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한슨이 있다. 그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 트롱프뢰유(trompe-l'oeil) :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 오브제(objet) :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머릿속의 구조도를 구체화하자!

16. ㉠과 ㉡을 중심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파에 해당한다.

필기 note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발라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재 그대로 제시하였다.
-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필기 note

18. 윌슨의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필기 note

〈보기〉



쿠넬리스, 「무제」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② 헨슨이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③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19. 문맥상 ㉠ ~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필기 note

- ① ㉠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 ② ㉡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 ③ ㉢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 ④ ㉣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 ⑤ ㉤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1문단

① [예시 -> 정의]를 통해서 하이퍼리얼리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글의 핵심 소재는 [하이퍼리얼리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국어 강사 : 후국일

N 글장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①[예시 -> 정의]를 통해서 하이퍼리얼리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글의 핵심 소재는 [하이퍼리얼리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관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 트롱프뢰유(trompe l'oeil):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2문단

① 1문단의 예시를 끌어와서 현실성과 사실성의 개념을 설명해주네요. 여러분은 항상 뒷 내용을 읽을 때도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의식적으로 가져와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해요.

② 그리고 그러한 현실성과 사실성의 개념을 통해서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를 비교하고 있었죠. 늘 말하지만 이렇게 대상이 [구분 → 비교]될 때는 [공통점 ↔ 차이점]을 의식적으로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선지에서 건드릴 거니까요 :)



N 글장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국어 강사 : 후국일

- ① 1문단의 예시를 끌어와서 현실성과 사실성의 개념을 설명해주네요.
여러분은 항상 뒷 내용을 읽을 때도 앞에 나왔던 내용을 의식적으로 가져와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해요.
- ② 그리고 그러한 현실성과 사실성의 개념을 통해서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를 비교하고 있었죠.
늘 말하지만 이렇게 대상이 [구분 → 비교]될 때는 [공통점 ↔ 차이점]을 의식적으로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선지에서 건드릴 거니까요.)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3문단

①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 헨슨과 그의 구체적인 작품인 ㉠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즉 2문단에서 언급한 하이퍼리얼리즘의 작품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② 따라서 여러분은 2문단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결국 3문단의 내용이 길지만 ㉠은 [2문단 -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작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문단이었죠.



N 글장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국어 강사 : 후국일

'현대 학자들'

이라는 표현을 보아

이 글은 통시적으로 전개되는 글일 가능성이 높네.

현대의 견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나오네?

2문단과 구성이 유사한걸?

[2문단의 흐름 : 근대의 견해 제시(=기계론) > 근대의 학자들 > 앞 문단(=목적론) 비판 > 반론]

[3문단의 흐름 : 현대의 견해 제시(=기계론 비판) > 현대의 학자들 > 앞 문단(=기계론) 비판]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게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붙여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 오브제(objet) :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4문단

① 이번에는 @에 사용된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문단이네요. 이 역시 2문단에서 언급한 하이퍼리얼리즘의 기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② 여러 기법이 나오지만 결국 정리하면 2문단에서 말한 [새로운 재료 + 기계적인 방식 -> 대상을 정확히 재현]을 구체화한 내용이고 그러한 기법들을 통해 [사실성 = 정확히 재현]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문단이네요.



국어 강사 : 후국일

N 글정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 ① 이번에는 @에 사용된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문단이네요.
이 역시 2문단에서 언급한 하이퍼리얼리즘의 기법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 ② 여러 기법이 나오지만 결국 정리하면 2문단에서 말한 [새로운 재료 + 기계적인 방식 -> 대상을 정확히 재현]을 구체화한 내용이고 그러한 기법들을 통해 [사실성 = 정확히 재현]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문단이네요.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5문단

①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 = 현실을 포착 + 그러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 → [그러한 현실 전달 방식은 다양함] → [하이퍼리얼리즘 ↔ 팝아트] 이 핵심이었네요. 어렵지 않죠? :)



N 글장이수농국어
blog.naver.com/karon1448

국어 강사 : 후국일

①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 = 현실을 포착 + 그러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

-> [그러한 현실 전달 방식은 다양함]

-> [하이퍼리얼리즘 <-> 팝아트]

이 핵심이었네요. 어렵지 않죠? :)

단서에 a, b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a>b 순서로 단서를 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거예요.

16. ㉠과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팝아트는 대상을 ^{낮다고}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을)

㉣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을

㉤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파에 해당한다.
팝아트 → ㉠만
하이퍼리얼리즘 → ㉠ + ㉡) 리얼리즘 유파

16번 선지별 선택 비율
 ① 89% ② 2% ③ 2% ④ 1% ⑤ 3%
 출처: 메가스터디



N 글장이수농국어
 blog.naver.com/karon1448

① [구분/비교]

->전형적인 [비교]문제네요.

두 유파 모두 [리얼리즘 ->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죠.

2문단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 점에서는 공통적이다]에서 확인 가능해요.

해당 지문의 발문을 읽으면서 체크해두셨으면 무난하게 거르고 가는 선지죠.

②[구분/비교]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은 맞지만,

㉡이 낮다고 봐야겠죠. ㉡은 [사실성 = 실제와 똑같이 표현]인데, [변형 <-> 똑같이 표현]이기 때문에 ㉡은 낮다고 보는 게 적절해요.

③[구분/비교]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하이퍼리얼리즘이죠.

또한 그를 통해 ㉠이 아닌 ㉡을 추구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네요.

2문단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에서 무난하게 확인 가능해요.

④[구분/비교]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팝아트**죠.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했다고 했어요.

⑤[구분/비교]

->㉠과 ㉡을 모두 동시에 추구한 것은 하이퍼리얼리즘이에요.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롬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 16. ②번

- 16. ①번

- 16. ③번

- 16. ④번

* 트롬프뢰유(trompe l'oeil):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한슨이 있다. 그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 오브제(objet):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
- ㉡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붙여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
- ㉢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제 그대로 제시하였다. (○)
- ㉣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 ㉤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

17번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1% ③ 5% ④ 3% ⑤ 86%
 출처 : 메가스터디



N 글장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 [목적과 수단]
 -> [합리적인 소비 성향 반영]이 오답의 근거가 되네요.
 3~4문단에서 ㉠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
 +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나머지 선지는 진짜 단순 일치 내용이라 미간에 힘주고 찾으시면 됩니다.
 생각할 만한 선지는 그나마 ㉢뿐이네요.

㉢ [목적과 수단]
 -> [욕망의 주체 = 여자 -> 실물 주형 기법 사용 ->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
 + [욕망의 객체 = 카트 ->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를 통해 확인 가능하죠. 쉽네요.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 트롱프뢰유(trompe l'oeil): '속임수 그림'이란 발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 17. ㉦번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붙여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 17. ㉧번

* 오브제(objet):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18. 윗글의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쿠넬리스, 「무제」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18. ③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② 헨슨이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③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코수스+ 쿠넬리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18번 선지별 선택 비율
 ① 2% ② 4% ③ 84% ④ 4% ⑤ 4%
 출처 : 메가스터디

③[구분][비교]

<보기>를 통한 전형적인 입장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네요.

뒷장으로..!

TIP!

<보기>문제는 3가지 유형 정도로 나와요.

1)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지문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

-> 대부분의 <보기> 문제.

2) 지문에서 간단하게 제시된 소재나 제재를 <보기>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해하는 것.

-> 양자 컴퓨터, 포아송비, DNS스푸핑의 해결 과정.

3) 지문의 내용과 대조, 대비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지문의 내용과 **[비교]**하는 것.

-> 주로 주장이나 이론 등이 제시되는 지문에서 등장.

-> 1)번이 거의 대다수고,

요즘 킬러로 나오는 문제들은 2)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잘 기억해두셨다가 무엇을 묻는지 먼저 확인하고

방향성을 세우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해당 문제는 3)의 유형으로 제시되었죠. [비교]문제:)

[헨슨 : 친숙한 대상 +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재현

-> 현실을 포착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 -> 감상자와 소통]

[쿠벨리스 : 흔히 볼 수 있는 대상

-> 그대로 제시 -> 감상자가 작품의 의미를 만듦]

[코쿠스 : 하나의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

->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함을 보여줌]

->따라서 ③의 내용과 같이

[미술에서의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헨슨)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

(->)있는 그대로 재현과는 다른 의미죠. 말 그대로 그 대상을 그대로 가져다 제시한다는 말이니깐요.)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절하겠네요.

①[구분][비교]

->[시각,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 =감상 기준]

이 된 것은 오히려 쿠벨리스의 작품이었네요.

②[구분][비교]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헨슨의 주장과 거리가 멀죠. 헨슨은 [친숙한 대상 = ⊕추구]였으니까요.

④[구분][비교]

->코벨리스는 [작품의 의미 -> 감상자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적절하지 않네요.

⑤[구분][비교]

->오히려 코벨리스가 [말을 그대로 가져다 제시]함으로써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19.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 ㉠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 ㉡ ㉡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속하다)
- ㉢ ㉢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 ㉣ ㉣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 ㉤ ㉤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9번 선지별 선택 비율

㉠ 2% ㉡ 87% ㉢ 5% ㉣ 2% ㉤ 2%

출처 : 메가스터디



N 글정이수능국어

blog.naver.com/karon1448

㉡와 ㉥의 [들었다 =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안에 속하거나 포함 되었다] 라는 의미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죠.

- ㉠ : 몸이나 물건을 무엇이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대다 <-> □ : 남에 힘에 의지하다
- ㉢ : 뒤를 잇따르다 <-> □ :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
- ㉣ : 어떤 일을 맡아 하다. <-> □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
- ㉤ :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 <-> □ : 품질, 수준, 가치, 능력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

적용 연습

18학년도 9월 16~19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한슨이 있다. 그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 트롱프뢰유(trompe-l'oeil) :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 오브제(objet) :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머릿속의 구조도를 구체화하자!

16. ㉠과 ㉡을 중심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파에 해당한다.

필기 note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발라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재 그대로 제시하였다.
-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필기 note

18. 윌슨의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필기 note

〈보기〉



쿠넬리스, 「무제」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② 헨슨이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③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19. 문맥상 ㉠ ~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필기 note

- ① ㉠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 ② ㉡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 ③ ㉢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 ④ ㉣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 ⑤ ㉤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한슨이 있다. 그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 트롱프뢰유(trompe-l'oeil) :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 오브제(objet) :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머릿속의 구조도를 구체화하자!

16. ㉠과 ㉡을 중심으로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파에 해당한다.

필기 note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발라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재 그대로 제시하였다.
-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필기 note

18. 윌슨의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필기 note

<보기>



쿠넬리스, 「무제」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② 헨슨이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③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19. 문맥상 ㉠ ~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필기 note

- ① ㉠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 ② ㉡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 ③ ㉢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 ④ ㉣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 ⑤ ㉤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N 글장이수능국어



글장이수능국어 블로그

질문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건지.. 공부법 칼럼이 필요하면?

수험생활에 도움될 고퀄리티 국어자료를 원하면?



추천의 말씀

“독서실록은 수험생이 스스로 점검하기 어려운 부분인 독해 방법을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해냈다. 집필자의 정성이 눈에 보일 만큼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 완성이 된다면 본원의 학생들에게 권해 보고 싶다.”



서초 메가스터디 의치대합격관 부원장 **김종두**